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문학에 나타난 가족표상*

- 만년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난희**
knh2765@jejunu.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어느 바보의 일생』에 나타난 가족: 이기적 사랑의 공동체 |
| 2. 『주유의 말』의 부모와 자식: 비극의 원점 | 5. 나가며 |
| 3. 『갓파』에 나타난 가족제도: 부조리한 제도 | |

主題語: 아쿠타가와(Akutagawa), 가족표상(family representation), 비극의 원점(origin of tragedy), 부조리한 제도(absurd system), 이기적 사랑의 공동체(community of selfish love)

1. 들어가며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이후, 아쿠타가와) 텍스트에 나타난 가족에 대한 표상은 회의적이고 어둡다. 『어느 바보의 일생(或阿呆の一生)』에서 가족은 사랑을 앞세운 ‘이기적 공동체’ 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유의 말(侏儒の言葉)』에서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연은 “인생 비극의 제1막(人生の悲劇の第一幕)” 이라고 단언한다. 또 『갓파(河童)』에서는 가족제도가 지닌 부조리성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한다. 이처럼 그의 작품 속에 나타난 가족과 관련한 이미지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로막는 가공할만한 숙명적 힘 또는 구속으로 표상되고 있음을 본다. 이러한 인식의 근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아쿠타가와와의 출생 및 성장환경·청년기 실연체험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쿠타가와와는 생후 8개월 쯤 되는 시기에 생모가 정신이상을 일으켜서¹⁾ 외가인 아쿠타가와 집안에 맡겨져 양육된다. 이후 재판이라는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외숙부 아쿠타가와 도쇼(道章)의 양자로 정식으로 입적된다.²⁾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류노스케가 외가인 아쿠타가

* 이 논문은 2021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1) 모리모토 오사무 평전에 따르면 “생후 7개월 쯤 되는 10월 25일” 생모 후쿠가 발광했다. “라고 나온다. 森本修(1977)『新考・芥川龍之介伝』北沢, p.3

와 집안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으며 성장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먼저 아쿠타가와 가계(家系)의 내력을 살펴보면 에도시대부터 대대로 다도(茶道)와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오쿠보주(奥坊主³⁾)라는 직책을 맡아온 집안이다. 따라서 의전과 격식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가풍을 지니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봉건질서가 와해되는 과도기에 아쿠타가와 가문은 사족의 신분이 된다.⁴⁾

양가(養家)인 아쿠타가와 집안에는 구사조시(草双紙⁵⁾)등의 소설책이 서가를 가득 메우고 있었으며 양부는 분재·하이쿠·전각·바둑·조루리의 일종인 잇추부시(一中節) 등에 취미가 있었다.⁶⁾ 양모는 전승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어서 유년기의 류노스케(龍之介⁷⁾)에게 많은 옛날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한다.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은 생모 후쿠(ふく)의 언니인 후키(ふき)이다. 후키는 평생 독신이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도 많았으며 조카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류노스케의 양육과 교육은 실질적으로는 후키가 전담했다고 전해진다. 아쿠타가와가 유년시절 학교에서 쓴 습작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서 보관할 정도이다. 그래서 아쿠타가와와의 전기적 사료는 방대한 편이다.

이러한 구가(舊家)의 보수적 전통을 지닌 가정환경 속에서 류노스케의 성품과 취향이 형성되었으며, 게다가 용모와 체질 또한 외가 쪽을 많이 닮았다.⁸⁾ 본인 또한 친가보다는 외가 쪽에 소속감과 친밀감이 강했음을 『점귀부(点鬼簿)』에서 말한다.⁹⁾ 하지만 성장하면서 양자라는 입지 때문에 자유가 속박되는 것을 절감했으며 청년기에는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관철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체험은 그의 가족관 형성

2) 류노스케의 양육을 맡았을 때, 양부의 나이는 43세였으며 생모 후쿠의 11살 연상인 친 오빠이다. 생부 도시조는 아내가 정신이상을 일으키자 처가인 아쿠타가와 집안에 류노스케의 양육을 맡긴다. 도시조는 영특하게 성장해 가는 친아들에게 애착을 느껴 되찾아오려 시도했으나 양가의 반대에 직면한다. 이 다툼은 재판을 거쳐야했으며 이런 우여곡절 끝에 류노스케는 정식으로 아쿠타가와 집안의 양자로 입적된다. (関口安義 『芥川龍之介 永遠の求道者』洋々社, pp.20-21)

3) 에도막부의 다회(茶會)와 다기(茶器)를 관장하던 하급관리를 말한다.

4) 森本修 『新孝・芥川龍之介伝』, p.28

유신 이후 도쇼는 동경도 소속 하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5) 에도시대 유행했던 그림이 들어있는 대중소설 종류를 말한다.

6) 関口安義 『芥川龍之介 永遠の求道者』洋々社, p.22

7) 아쿠타가와와의 유년시절은 부계인 니이하라(新原) 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쿠타가와 성을 지니기 이전을 언급할 때는 혼돈을 피하기 위해 ‘류노스케’로 지칭하고자 한다.

8) 이에 대해서는 아쿠타가와와의 고등학교 동창인 쓰네토 교(恒藤恭)가 쓴 『旧友芥川龍之介』가 있다. 앞의 책 ‘養父似の龍之介’ 참조, p.23

9) 『点鬼簿』[3장]에 “나의 아버지는 어린 나에게 이런 진기한 물건을 사주며 양가로부터 나를 되찾아오려 했다. 어느 날 밤(중략)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노골적으로 친가로 도망쳐오라고 설득한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중략) 공교롭게도 이 설득은 한 번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것은 내가 양가의 부모를, —특히 백모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芥川龍之介全集(6)』, p.194

에 회의적인 경향을 드러내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본고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작품에 나오는 가족표상을 전기를 다룬 문헌¹⁰⁾을 토대로 고찰하고자 한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가족에 관해 언급한 작품으로는 『주유의 말(侏儒の言葉)』(1923-5), 『갓과(河童)』(1927.3), 『어느 바보의 일생(或阿呆の一生)』(1927.6)이 있다. 이 텍스트들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죽음을 결의한 시기에 쓴 작품들인 만큼 그의 내면에서 분출되는 욕성이 진솔하게 토로된 점에 주목했다. 본고는 이 세 편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가족 표상을 살펴보고자 하며, 텍스트는 치쿠마문고(2001) 『芥川竜之介全集(6)』의 「河童」와 「或阿呆一生」, 『芥川竜之介全集(7)』의 「侏儒の言葉」를 사용하였음을 말해둔다.

2. 『주유의 말(侏儒の言葉)』의 부모와 자식(親子) -비극의 원점-

『주유의 말』은 168개의 단장(短章)으로 구성된 아포리즘(aphorism)¹¹⁾ 형식의 수필이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서문에서¹²⁾ “이 책은 나의 사상을 전한다기 보다는 나의 사상의 변천과정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아포리즘은 아이러니에 찬 비유와 패러독스로 점철되어 있다. 그는 이 작품들 안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담고 있는데 번득이는 지성과 섬세적 성찰이 특징이다.

여기서 주유(侏儒)는 중국의 예능에서 재주를 부리는 난장이를 말한다. 작가는 만년의 자신에 대해 생활인으로서 패배한 무력한 인간으로 규정하는데, 자신을 자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어휘가 주유(侏儒)와 바보(阿呆)이다. 이 작품 속에는 ‘부모와 자식(親子)’이라는 제목이 달린 짧은 글이 네 개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는 아이를 양육하는데 적합한지 아닌지 의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말과 소는 어미가 있어야 양육됨에 틀림없다. 그러나 자연이라는 명목 하에 구습을 변호하는 것은 확실히 부모의 억지이다.

10) 森本修(1977)『新考・芥川竜之介伝』北沢 関口安義(2005)『芥川竜之介 永遠の求道者』洋々社, 鷲只雄 編(1992)『芥川竜之介』河出書房

11)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특유의 지성과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로 일찍부터 아포리즘 형식을 즐겼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아포리즘은 『주유의 말』에 잘 발휘되고 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라·로슈푸코의 『잠언록(箴言錄)』과 아니톨 프랑스의 『에피쿠로스의 정원(エピクロスの園)』을 모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菊池弘『芥川竜之介事典』, p.14

12) 「侏儒の言葉」の序『芥川竜之介全集(7)』, p.151

만일 자연이라는 명목으로 어떤 구습도 변호할 수 있다면, 먼저 우리들은 미개인의 약탈혼에 대해서도 변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親は子供を養育するのに適しているかどうかは疑問である。成程牛馬は親の為に養育されるのに違いない。しかし自然の名のもとにこの旧習の弁護するのは確かに親の我儘である。若もし自然の名のもとに如何なる旧習も弁護出来るならば、まず我我は未開人種の掠奪結婚を弁護しなければならぬ。

(『侏儒の言葉』 ‘親子’, p.204)

위의 글은 아쿠타가와와 내면에 각인된 개인적 체험과 결부시켜 유추해 해석할 수 있겠다. 이성이 없는 동물은 본능에 따라 새끼를 키우는 것이 자연 현상이지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동물처럼 자식을 기른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는다. 아쿠타가와와 아내 후미(文)가 전하는 말¹³⁾에 따르면 시집 올 당시 양부모와 백모의 나이가 지긋해서 자신을 며느리로 대했다기보다는 어린 손녀딸처럼 보살핌을 받았다고 말한다. 연령의 차가 워낙 커서 서로의 기분과 습성을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을 내비치고 있다. 장남 히로시(比呂志)가 탄생했을 때 갓난아이를 집안 어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양육했으며 아버지인 아쿠타가와는 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식이었다는 대목이 나온다.¹⁴⁾

후미는 다이쇼기 아토미 여학교(跡見女学校)¹⁵⁾에서 5년간 교육을 받았다.¹⁶⁾ 그런 며느리의 육아법에 대해 그러한 것은 불필요하다며 목살하고 자신들이 해왔던 방식인 인습으로 손자를 양육한 것이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아쿠타가와와 심경은 착잡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인색한 완고한 노인들 틈바구니에서 젊은 부부가 겪었을 고충을 헤아려 보게 된다.

아쿠타가와와 일본자연주의 연장선에서 문단에 확고하게 뿌리내린 ‘사소설’의 방법에 저항한 작가이다. 사소설 작가들은 작가 자신의 인생문제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것을 진정한 리얼리즘으로 보고 있다. 조카와의 불륜을 고백한 시마자키 도손의『신생(新生)』에 대해서

13) 남편과 함께 했던 결혼생활 10년을 회상하며 구술한 자료로는 아쿠타가와 후미(芥川文)의『추상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追想 芥川竜之介)』가 있다. 본고는 石割透가 편집한『아쿠타가와 추상(芥川追想)』에 실린「이십삼년 후에(二十三年ののちに)」라는 제목의 후미의 앞의 글을 참조했다. 石割透 編(2017)「二十三年ののちに」『芥川追想』岩波文庫, pp.465-475

14) 위의 책, p.468

15) 아토미 여학교는 1875년 화가(畫家), 서예가인 아토미 가케이(跡見花溪; 1840-1926)가 설립한 학교이다. 화족여성을 위한 여자학습원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황족과 화족의 교육을 담당했다. 교육내용은 습자(習字), 회화(繪畫), 재봉(裁縫) 등이다. 개교 당시 황후의 뜻에 따라 보라색 하카마를 학생들에게 착용시켰다. 후미는 아토미 여학교 재학 중에 아쿠타가와와 약혼을 하고 졸업 이후인 1918년에 결혼을 한다.

16) 1906년에 발포된 ‘五年制高等女学校令(5년제고등여학교령)’에 따른 것이다.

아쿠타가와와는 “과연 선생은 있었는가? 노회한 위선자를 만났다.”¹⁷⁾ 라며 냉소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그의 글들은 그의 체험을 행간에 담고 있음에 주목해 읽어낼 필요가 있다. 다음은 같은 제목으로 쓴 또 다른 글이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가장 이기심이 없는 사랑이다. 하지만, 이기심이 없는 사랑이 반드시 아이의 양육에 가장 적합한 것은 아니다. 이 사랑이 아이에게 끼치는 영향은 아이를 폭군으로 만들거나 약자로 만드는 것이다.

子供に対する母親の愛は最も利己心のない愛である。が、利己心のない愛は必ずしも子供の養育に最も適したものではない。この愛の子供に与える影響は—少くとも影響の大半は暴君にするか、弱者にするかである。

(『侏儒の言葉』‘又’, p.204)

앞에서 언급했듯이 류노스케는 생모의 광기 때문에 어머니의 친정인 아쿠타가와 집안에 맡겨져 금지옥엽 양육되었다. 특히 친모나 다름없는 백모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류노스케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다. 아쿠타가와 또한 백모를 너무나도 사랑했다고 말한다. 이 무한한 사랑은 어린 류노스케에게 축복이었음에 틀림없지만 점차 성장하면서 저항할 수 없는 무력감과 속박감도 느끼게 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후일 그는 유서에서 “나는 양기에서 양육되어 어른이 되었으며 한 번도 어리광을 부린 적이 없다. (중략) 지금 내가 자살을 하는 것이 어찌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는 어리광일지 모르겠다”¹⁸⁾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글은 아쿠타가와 자신이 폭군이 되는 대신 나약한 인간으로 형성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흔히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며 숭고한 사랑이라고 칭송되곤 한다. 아쿠타가와와는 이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백모의 헌신적 사랑은 그를 옥죄는 족쇄로도 작용한 양면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사랑에는 절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전적인 희생으로 자식을 양육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이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인식이 들어있다. 어머니의 일방적 희생으로 베풀어진 자식사랑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양육방식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펴지 못하고 위축되기 때문이다. 서툰 정원사가 나무의 성장을 가로 막듯이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은 결국 아이를 무절제한 인간 또는 죄의식에 시달리는 나약한 인간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작가의 체험

17) 『或阿呆の一生』「四十六 嘘」, p.465

18) 『芥川竜之介全集(第十二卷)』岩波書店, p.425

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같은 제목의 또 다른 글을 보자.

자고이래로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반복해 왔던가.—“나는 결국 실패자다. 그러나 이 아이 만큼은 성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古來如何に大勢の親はこう言う言葉を繰り返したであろう。—「わたしは畢竟失敗者だった。しかしこの子だけは成功させなければならぬ。」

(『侏儒の言葉』‘又’, p.205)

위의 글은 우리의 주위에서 쉽게 목격되는 현실이기도하다. 부모는 자신이 성취하지 못한 꿈을 자식에 의탁해 자식이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보상심리에서 온갖 정성을 쏟는다. 이는 결국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대리만족이며, 자식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기심을 예리하게 꿰뚫고 있는 대목이다.

아쿠타가와와의 인생에 대입해 보자면 백모의 헌신적인 조카 사랑은 독신인 백모가 이를 보상하기 위한 무의식의 발로에서 열성을 쏟아 부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조건 없는 무상의 사랑으로 보이지만 그 심층을 해부해 보면 무의식적 계산이 있다는 아쿠타가와 특유의 모럴리스트¹⁹⁾적 인간통찰이 보인다.

인생 비극의 제1막은 부모자식이 된데서 비롯된다.

人生の悲劇の第一幕は親子となったことにはじまっている。

(『侏儒の言葉』‘又’, p.204)

위의 글은 다소 충격적이다. 아쿠타가와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인생 비극의 시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식이 태어나면 축복으로 여기는 것이 사회의 통념이건만 아쿠타가와와의 인식은 기존의 통념을 깨부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배후에는 그의 남다른 아픈 체험이 있다는 전제하에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공동체의 최소단위이다. 확장되면 대가족이라는 공동체로 이어진다. 하지만 가족들끼리의 공동체 의식이 강조되면 될수록 개개인의 자유는 축소를 수반한다.

유교문화권에서는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등으로 맺어진 가족공동체의 결속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가족끼리 원만한 유대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서로의 자유의지를 제한해야 한다. 이를 미덕으로 칭송하는 것은 부조리하다는 인식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

19) 인간성 및 인간의 삶의 태도를 탐구하여 이를 수필적·단편적으로 쓰는 사람을 말한다.

몽테뉴·파스칼·라로슈푸코 등이 모럴리스트의 대표적 인물이다.

본다면 불편의 감수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형제자매의 인연을 맺고, 장성하여 결혼하여 또 자식을 낳으면 규모가 큰 대가족 공동체가 형성된다. 각각의 개성을 지닌 다양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세계는 서로 부딪치면서 질곡이 따르기 마련이다. 게다가 아쿠타가와와는 “두 명의 아버지와 네 명의 어머니”²⁰⁾를 두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양자라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결혼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의지를 꺾음으로써 가족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 피를 나눈 남매라는 인연 때문에 누나(히사)의 가족을 돌보아야만 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화재를 내고 자살해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매형의 뒷수습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아쿠타가와와는 가게는 양가와 친가가 복잡하게 얽혀있었기 때문에 가족의 범주는 친가와 양가 양쪽의 가족들을 모두 포함하는 대가족으로 구성된 만큼 고통도 컸다. 누나 니하라 히사(新原久, 1888-1956)는 수의사(獸醫士) 구즈마키 요시사다(葛巻義定)와 결혼하여 요시토시(義敏)와 사토코(さと子) 남매를 낳았으나 이혼(1910년)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돌아온다. 그 후 다시 변호사 니시카와 유타카(西川豊)와 재혼(1916년)하여 루리코(瑠璃子)와 아키라(晃)를 낳아 살았다²¹⁾. 그러던 중 1926년에 매형 니시카와가 방화(放火) 혐의로 조사를 받던 도중 돌연 철도자살을 한 것이다. 매형은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데다가 화재가 나기 전 집값의 3배에 해당하는 거액의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었으므로 용의선상에 있었다.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자살했지만 그 뒤처리는 가족의 대표로서 아쿠타가와와가 떠맡아야만 했다. 심신이 극도로 피로했던 당시의 아쿠타가와와는 잦은 경찰출동을 해야 했으며 번잡한 조사에 시달렸다. 게다가 가장을 잃은 누나 가족의 생계문제까지 해결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볼 때 그의 가족표상이 혐오감으로 표출되는 것은 납득이 간다. 모리모토 오사무의 평전을 보면 “누나 히사와 이복동생 도쿠지와 의절하겠다.”는 아쿠타가와와의 유서 내용이 나온다. 자신이 죽은 후 혼자가 될 아내 후미에게 그들이 짐이 될 것을 우려했다²²⁾고 한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아쿠타가와와는 가족이라는 굴레 때문에 남다른 고통을 받았으며 그것이 가족에 대한 부정적 표상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다.

20) 関口安義 「第1章」『芥川竜之介 永遠の求道者』, pp.11-40

두 명의 아버지는 생부 니하라 도시조와 양부 아쿠타가와 도쇼를 말한다. 네 명의 어머니는 생모 후쿠야모 도모, 백모 후키, 생부의 후처가 된 숙모 후유를 말한다.

21) 菊地弘 編(2001)『芥川竜之介事典』, pp.383-384

森本修(1977)『新考・芥川竜之介伝』北沢, pp.25-26

22) 森本修(1977)『新考・芥川竜之介伝』北沢, p.26 참조

3. 『갓파』에 나타난 가족제도

-부조리한 제도

『갓파(河童)』는 아쿠타가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해인 1927년 3월 잡지『개조』에 발표된 소설이다. 작가는 “모든 것에 대한 혐오, 특히 자기혐오(デグウ)로부터 이 작품이 태어났다”²³⁾ 라고 말한다. 이 작품에는 다양한 주제가 망라되어 있는데 본고는 그중 가족과 친연성이 있는 주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작품은 상상계의 동물인 갓파들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데 인간 세계의 관습이라든가 가치체계를 전도(顛倒)시키는 등 패러디로 차있다. 작품 속 갓파들은 인간처럼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출생에 대해 자신이 선택권을 지니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아쿠타가와가 품고 있었던 생명의 탄생이 과연 축복인지 출생에 대한 근원에서의 회의를 표출한 것이라 여겨진다. 여기에는 생모의 광기라는 아쿠타가와와 음울한 체험이 투영되어 있음을 본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그의 삶의 조건은 생모의 광기로 인한 ‘모성의 결락’에서 출발했다. 청년기에는 가족들의 반대로 요시다 야요이와라는 신여성과의 결혼이 좌절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두 개의 중대 사건은 그의 인간관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는데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성 부재를 도출할 수 있다.

『갓파』 「4장」에서 갓파의 아버지 백(バック)은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한 다음 대답해라”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유전은 정신병만으로도 큰 일입니다. 게다가 나는 갓파라는 존재를 나쁘다고 믿고 있습니다.”

「お前はこの世界へ生れて来るかどうか、よく考えた上で返事しろ」「僕は生れたくありません。第一僕のお父さんの遺傳は精神病だけでも大へんです。その上僕は河童的存在を悪いと信じていますから」

(『河童』, p.190)

위에서 보듯이 갓파들이 자신의 출생에 대한 선택권을 지니고 있다는 설정은 울림이 크다. 아버지 백과 태아의 문답은 아쿠타가와와 ‘생모의 광기’라는 사건을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아쿠

23) 1927년(쇼와2) 4월3일 아침에 쓴 편지 「田端から吉田泰司宛」에 다음의 내용이 있다.

“冠省、あらゆる「河童」の批評の中にあなたの批評だけ僕を動かしました。(중략) 河童はあらゆるものに対する 一就中僕自身に対するデグウから生まれました”

『芥川龍之介全集(第十一卷)』岩波書店, pp.507-508

타가와는 ‘생모의 광기’가 모든 것을 어긋나게 한 단초였음을 내비치고 있다. 생모의 정신이상 때문에 양가에서 양육되었으며 그 결과 그의 삶은 비극적이었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위의 “아버지의 유전병”이라는 태아의 언급을 통해서 생모의 정신이상이 유전되지는 않을까 강박관념을 지니고 살아야만 했던 아쿠타가와와의 심연을 엿볼 수 있다. 잣과 부자의 대화에서 정신병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실존의 고통을 면할 수 있는 지복(至福)이라는 인식을 끌어낼 수 있다. 인간은 생로병사를 거쳐야 하는 숙명을 지닌 존재이다. 생로병사의 실존고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면 인간이란 존재는 그리 좋은 것이 아니라는 암울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위의 글은 아쿠타가와와의 인생에 대한 근원적 회의를 읽어낼 수 있는 대목이다.

『잣과』 「5장」에는 아쿠타가와와의 분신으로 보이는 잣과 시인 특이 나오는데 그들은 잣과의 생활이나 예술에 대해 종종 이야기를 나눈다. 다음은 특이 말하는 잣과의 삶에 관한 철학이다.

잣과의 생활만큼 바보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부자, 부부, 형제 같은 것들은 모두 서로를 괴롭히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살고 있어요. 특히 가족제도라는 것은 정말이지 어리석습니다. (중략) “봐 저 바보 같은 것들일!” (중략) 창밖의 거리에는 나이 어린 잣과 한 마리가 부모처럼 보이는 잣과를 비롯하여 일곱 여덟 마리나 되는 암수 잣과들을 목언저리에 걸치고는 숨을 헐떡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河童の生活ぐらい、莫迦げているものはありません。親子夫婦兄弟などというのはことごとく互いに苦しめ合うことを唯一の楽しみにして暮らしているのです。ことに家族制度というものには莫迦げている以上にも莫迦げているのです。「見たまえ。あの莫迦げざ加減を!」(中略) 窓の外に往来にはまだ年の若い河童が一匹、両親らしい河童をはじめ、七八匹の雌雄めすおすの河童を頸くびのまわりへぶら下げながら、息も絶え絶えに歩いていました。

(『河童』5장, p.193)

위의 글은 『어느 바보의 일생』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다. 아쿠타가와와의 가족에 대한 분노는 이 작품을 쓸 당시 극에 달했다. 자살에 이르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될 만큼 아쿠타가와가 가족에게서 느끼는 중압감은 컸다. 그러한 무거운 심경이 여과 없이 작품에 드러나 있음을 본다. 가족제도라는 틀이 아쿠타가와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대가족을 부양하는 어린 잣과의 애처러운 모습 안에 투영시킨 것이다. 그래서 시인 특이 가족제도에 속박되지 않으려고 자유연애를 하고 있으며 제도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연애를 실천한다. 그러나 저녁식탁을 마주한 이웃에 사는 단란한 잣과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며 선망의 시선을 던진다.

나는 어느 달빛이 환한 밤 툇과 팔짱을 낀 채 작은 창문 앞을 우연히 지나갔습니다. 그 창문 저쪽에는 부부로 보이는 암수 갓파가 두세 마리의 아이 갓파와 함께 만찬이 차려진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툇은 한숨을 쉬며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초인적 연애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야, 저런 가정의 모습을 보면 역시 부러움을 느낀다네.”

僕はある月のいい晩、詩人のトックと肘を組んだまま、小さい窓の前を通りかかりました。そのまた窓の向こうには夫婦らしい雌雄めすおすの河童が二匹、三匹の子どもの河童といっしょに晩餐のテーブルに向かっているのです。するとトックはため息をしながら、突然こう僕に話しかけました。

「僕は超人的恋愛家だと思っているがね、ああいう家庭の容子ようすを見ると、やはりうらやましさを感ずるんだよ。」

(『河童』5장, pp.194-195)

아쿠타가와는 가족제도에 대해 인간을 얽어매는 부조리한 제도라고 매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에게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결속된 단란함을 희구하는 근원의 향수 또한 잠재하는 것도 사실임을 고백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쿠타가와는 가족이라는 인연 때문에 감수해야만 하는 부조리한 인간 실존에 대해 저항하고 절규하고 있다. 특히 죽음을 앞둔 만년에는 대가족제도 안에서 겪는 고통이 극한에 달했기에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더욱 천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대답은 가족이란 개인을 옴아매는 굴레이며 비극의 근원이라는 인식과 함께 가족 제도는 문명이 고안해낸 가장 부조리한 제도라는 결론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4. 『어느 바보의 일생』에 나타난 가족

-이기적 사랑의 공동체-

『어느 바보의 일생(或阿呆の一生)』은 1927년 6월 20일 날짜가 적힌 상태로 친구인 구메 마사오(久米正雄)에게 맡겨진 소설 형식의 유고이다. 51개의 단장(短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메 마사오는 이 작품을 그해 10월 잡지 『개조(改造)』에 발표했다. 죽음을 앞두고 쓴 작품인 만큼 자신의 심경을 진솔하게 토로한 글이라고 여겨진다. 이 수필의 「3장」 ‘집(家)’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그의 백모(伯母)는 이 이층에서 자주 말다툼을 했다. 백모는 그와 양부모와의 사이에서 중재를 맡는 일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백모를 누구보다도 사랑했다. 평생 독신으로 지냈던 그의 백모는 그가 스무 살 때 이미 예순에 가까운 노인이었다. 그는 어느 교외의 이층집에서 몇 번씩이나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고통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彼の伯母はこの二階に度度喧嘩をした。それは彼の養父母の仲裁を受けることもないことはなかった。しかし彼は彼の伯母に誰よりも愛を感じていた。一生獨身だった彼の伯母はもう彼の二十歳の時にも六十に近い年よりだった。彼はある校外の二階に何度も互に愛し合うものは苦しめ合うのかを考えたりした。

(『或阿呆の一生』三 ‘家’, p.444)

위의 글에서 사랑한다고 여겼던 가족에게서 발견되는 위화감을 엿볼 수 있다. 백모는 아쿠타가와에게 친모와 다름없었으며 가장 친밀한 가족이었다. 그럼에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말다툼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는 세대차에서 오는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서로의 기분과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데 애로가 있었던 것 같다. 서로 사랑한다고 굳게 믿었던 대상에게서 소통 불능의 막막함을 느꼈을 때 인간은 절망하게 된다. 자신의 분신처럼 여겨왔던 가족에게서 위화감과 이물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아쿠타가와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고통을 주는 것이다”라고 단언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아쿠타가와는 20대 초반에 마음이 끌리는 여성과 교제했으며 결혼을 성사시키고자 양가(養家)의 허락을 구했으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백모는 자식과도 같은 조카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의 장래를 걱정했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식의 마음을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상대를 사랑한다면 상대가 행복을 느끼는 방향으로 일이 진척되어야 한다. 그런데 양가의 어른들은 자식을 위한다면 자식에게 고통을 주었다. 가족이라는 명분하에 상충되는 의견이 나왔을 때, 가족 또한 길을 스쳐 지나가는 행인과 다를 바 없다는 통렬한 인식에 도달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 같이 살고 있으나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으며 일상 속의 타자로 걸돌고 있다. 부모와 자식 사이라고 해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낀다. 자식의 고통이 부모의 고통으로 체감될 수 없었던 것은 각자의 내부에 에고이즘이라는 근원적인 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부한다. 아쿠타가와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경우 이번에는 다른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또한 자신의 이기심의 발현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이 때 아쿠타가와는 현실과 타협하여 자신이 백기를 드는 것으로 이 사태를 마무리한다. 당시의 상흔은 그의 가족관에 어두운 그림자를 남겼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래서 그는 가족 공동체를 이기적인 사랑의 공동체라고 결론짓는다.

위의 글에는 아쿠타가와가 겪은 청년기의 실연사건이 각인되어 있음을 본다. 이때의 경험은 후일 그의 가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인간관에도 영향을 미쳐 부정적 인간관을 고착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야요이는 아쿠타가와와 같은 나이로 도쿄 고등여학교를 졸업하고 아오야마 여학원(靑山女學院)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재원이었다. 그녀는 영문학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미술과 문학에도 조예가 깊은 신여성이었다.²⁴⁾ 지적인 면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아쿠타가와 는 야요이한테 신선한 매력을 느낀다. 그럴 즈음 혼기가 찬 야요이에게 혼담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르네 지라르(Rene Girard)는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에서 “욕망은 타인의 욕망을 모방한다.”²⁵⁾고 인간의 욕망의 구조를 해부한다. 아쿠타가와 의 경우도 야요이한테 청혼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질투심을 느끼고 자기 안에 야요이에 대한 연애감정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는 야요이에게 청혼하겠다는 결심을 했으나 그의 결혼 희망은 봉건 적이고 인습적인 가치관을 지닌 가족들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고 그의 내면에 깊은 상흔을 남기고 만다.

그가 집안 어른들에게 결혼 의사를 밝혔을 때 양부모와 백모가 맹렬하게 반대한 것이다. 이 사건은 결국 아쿠타가와 의 항복으로 결말이 났다. 가족들의 반대 이유는 인텔리 청년이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고루했다. 야요이의 어머니가 친정의 호주로 되어 있는 점, 요시다 집안 에 입적되기 전에 딸 야요이가 출생한 것, 류노스케와 동갑이라는 것, 요시다 집안이 사족(士族)이 아니라는 점 등이 결혼 반대 사유로 거론되었다.

이것은 고루한 어른들의 편협한 가치관에 의한 반대사유일 뿐 진보적 사고를 지닌 청년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다. 이때 아쿠타가와 의 항복으로 결말이 나게 된 것은 그가 입양된 자식이라는 입지 때문에 길러준 양부모와 백모의 뜻을 거역한다는 것은 배신이라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유추해 본다. 아쿠타가와 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한다는 것은 길러준 양부모를 거역하는 행위이고 이는 곧 은혜를 저버리는 패륜이 된다. 따라서 모종의 부채 의식에 의한 타협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고 집을 뛰쳐나가서 독립적으로 일가를 이루기 에는 야성이 부족한 것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생모의 정신 이상이라는 숙명적 사건이 없었다면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구김살 없이 자랐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베푸는 사랑의 근저에 이기적 계산이 깔려 있음을 발견하고 놀라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일상의 아쿠타가와 는 모범적이고 예의바르고 다정다감한 인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24) 鷺只雄 編(1992)『年表芥川龍之介』河出書房, pp.47-48

25) 르네 지라르(2002)『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한길사, pp.39-101 참조.

이 책에서 지라르는 「삼각형의 욕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기·서간·유서 등에 나타난 그의 내면의 육성을 들어보면 생존을 위해 주위의 눈치를 살피야하는 비루한 인간, 자신의 소신을 굽힘으로써 지탱되는 굴욕적인 현실이라는 인식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어느 바보의 일생』 32. 싸움(喧嘩)에는 이복동생 도쿠지와와의 일화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는 그의 이복동생과 서로 맞붙어 싸움을 했다. 그의 남동생은 그로 인해 압박을 받기 쉬웠음에 틀림없었다. 동시에 또한 그 역시도 그의 남동생 때문에 자유를 잃었음에 틀림없었다. 그의 친척은 그의 남동생에게 “그를 닮아라”라고 계속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신에게는 손과 발이 묶이는 것과 같았다. 그들은 서로 맞붙은 채 마침내 틃마루에 굴러갔다. 틃마루의 뜰에는 백일홍이 한그루, —그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비를 머금은 하늘 아래 붉은 빛으로 꽃을 피우고 있었다.

彼は彼の異母弟と取り組み合ひの喧嘩をした。彼の弟は彼の為に圧迫を受け易いのに違ひなかつた。同時に又彼も彼の弟の為に自由を失つてゐるのに違ひなかつた。彼の親戚は彼の弟に「彼を見慣ならへ」と言ひつづけてゐた。しかしそれは彼自身には手足を縛られるのも同じことだつた。彼等は取り組み合つたまま、とうとう縁先へ転ころげて行つた。縁先の庭には百日紅が一本、—彼は未だに覚えてゐる。—雨を持つた空の下に赤光りに花を盛り上げてゐた。

(『或阿保の一生』「三十二 喧嘩」, p.462)

도쿠지는 용모와 성격 면에서 친부 도시조와 닮았으며 형 류노스케와는 용모도 닮지 않고 기질도 잘 맞지 않았다.²⁶⁾ 생모 후쿠가 죽은 후 나중에 생부의 후처가 된 숙모 후유(冬)는 이복동생 도쿠지를 낳는다. 그래서 니하라 집안은 도쿠지가 상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니하라 집안에서 발생한 문제는 도쿠지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운명은 그렇지 못했다. 형과 일곱 살 차이가 나는 동생 도쿠지는 모범적인 형 류노스케를 닮으려는 가족들의 잔소리를 들으며 자라나야만 했다. 류노스케의 모범적 성품과 우수한 자질 때문에 이복동생 도쿠지는 늘 비교가 되어야만 했다. 류노스케는 품행이 반듯한데다 학업도 우수한 보기 드문 수재였다. 평범한 형을 두었다면 비교를 당하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비범한 형을 둔 탓에 도쿠지는 항상 위축되는 삶을 살아야 했음을 가늠할 수 있다. 도쿠지는 형을 의식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며 그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린 적이 있어서 아쿠타가와가 매우 난처해 한 적도 있다.²⁷⁾

한편 당사자인 류노스케의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모범적이었는지 몰라도 그의 내면에는

26) 앞의 책, p.38
27) 모리모토 오사무, 앞의 책, pp.26-27

가족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꼭두각시 연기를 한다는 갈등이 있었다. 실생활에서 아쿠타가와와는 지극히 모범적이며 온화한 인간이었으나 작품 속 등장인물들을 보면 현실과 투쟁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의 작품 속의 인물들은 일상에서 내보일 수 없었던 냉소적이고 굴절된 내면을 보여준다. 이는 아쿠타가와와 또 다른 모습의 투영으로 읽어낼 수 있다. 이처럼 작품 속 자아와 실생활의 아쿠타가와와의 모습 사이에는 균열과 괴리가 보이는데 바로 여기에 그의 고뇌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그는 작품에 정신적 자화상을 그린다.²⁸⁾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이유라고 본다.

도쿠지에 대해서는『여름휴가중의 일기(暑中休暇中の日記)』²⁹⁾와 『아귀굴일록(我鬼窟日錄)』³⁰⁾에도 단편적으로 그려져 있다. 아쿠타가와와는 동생 도쿠지와 영화도 보러가고 밥도 먹으러 가는 등 친밀하게 그려져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동생을 안쓰럽게 생각한다. 도쿠지는 한 때 조각가를 자처하기도 하고 소설을 쓰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재능을 보였다. 그러나 나중에는 가업도 창작도 내팽개치고 일련중(一蓮宗)³¹⁾에 심취해 가출해버린다. 이 사건은 아쿠타가와와가 양가뿐만 아니라 생부 쪽의 가족까지도 혼자서 책임져야만 하는 부담으로 돌아오고 만다.³²⁾ 그런 남다른 가족 내력을 지닌 아쿠타가와를 떠올리면 그의 가족표상이 암울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된다.

5. 나가며

지금까지 아쿠타가와와의 만년의 텍스트 『주유의 말』 『갓과』 『어느 바보의 일생』에 나타난 가족표상에 대해 아쿠타가와와의 전기를 조명하며 살펴보았다. 이 작품들은 죽음을 결의한 시기에 쓴 작품인 만큼 35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면 깊이 각인한 인상적인 사건들을 주마등처럼 떠올리고 있다. 세 작품 모두 그의 전 인생을 압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의 문학은 적나라한 고백을 꺼리는 그의 기질 때문에 아포리즘과 우화형식을 취하고 있다.

28)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大導寺信輔の半生)』 『주유의 말(侏儒の言葉)』의 주인공은 현실의 아쿠타가와(芥川)와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핵심적인 정신은 그대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신적 풍경’이라고 부제를 달고 있다.

29) 『여름 휴가 중의 일기(暑中休暇中の日記)』 ‘동생(弟)’ 1904년에 쓴 글

30) 『我鬼窟日錄』은 아쿠타가와와의 1919년의 일기이며 ‘아귀’는 호(号)이다. 여기서 ‘아귀’는 자아(에고)를 의미하며, 서재의 이름으로도 사용했다. 『芥川龍之介事典』, pp.116-117 참조

31) 일본불교 13종(宗)중 하나로 니치렌(日蓮)을 종주로 하며 법화경에 의지한다.

32) 森本修(1977) 『新考・芥川龍之介傳』北澤圖書出版, pp.26-27

따라서 행간에 많은 의미가 함의되고 있다고 보고 행간에 숨겨진 진의에 주목해 살펴보았다.

본고는 아쿠타가와와의 성장환경과 함께 청년기의 실연체험 그리고 시대적 요인이 중첩되어 그의 텍스트는 어두운 비전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본다. 그가 청소년기를 보낸 메이지시대는 ‘대역사건’이 있었던 엄혹한 시기였다. 혈기왕성한 청년들은 움츠러들었으며 독서와 예술이라는 내면세계로 도피했다. 그들이 심취한 것은 세기말 유럽의 데카당스한 문학작품이었으며 그 안에서 위안을 발견한다.³³⁾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좌절된 연애라는 청년기 경험이 그의 세계관 나아가 가족표상에 회의적 그림자를 드리우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만년의 아쿠타가와와는 자신에 대해 실패한 생활인이라는 자각이 강했다. 그래서 주유·바보·조현병 환자에 가탁해서 내면의 응어리를 기탄없이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글쓰기는 억압된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착안해 낸 장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쿠타가와가 탁월한 기교파작가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게 된다.

이 작품들을 쓸 당시 아쿠타가와와의 나이는 35세로 결혼 10년차였다. 그가 생을 마감할 당시 그의 아내는 27세였으며 슬하에 어린 아들을 셋이나 두고 있었다. 게다가 양가와 친가의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가장이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착잡한 심경 속에서 가족에 대해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음을 보았다.

아쿠타가와와는『주유의 말』에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연이야말로 생의 근원임을 응시한다. 『어느 바보의 인생』에서는 가족이라는 사슬에 매여 고통을 받는 존재가 인간임을 백일하에 드러낸다. 『갓파』에서는 인류가 문명을 이루면서 정착시킨 가족제도가 함의한 부조리성을 토로한다. 아쿠타가와가 그려낸 가족 표상은 인간불신에 토대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 근원에는 모성부재와 양자체험, 실연체험이 자리한다고 고찰했다.

【참고문헌】

김난희(2008)『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문학의 이해』, pp.15-39
 르네 지라르(2002)『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한길사, pp.39-101
 芥川龍之介(2001)『芥川龍之介全集(6)』ちくま文庫, p.194
 _____(2001)『芥川龍之介全集(7)』ちくま文庫, p.151, p.204
 _____(1983)『芥川龍之介全集(第十一卷)』岩波書店, pp.507-508
 _____(1983)『芥川龍之介全集(第十二卷)』岩波書店, p.425
 石割透 編(2017)『芥川追想』岩波文庫, pp.465-475
 菊地弘 外 編(2000)『芥川龍之介辭典』明治書院, p.14, pp.116-117

33) 김난희(2008)『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문학의 이해』, pp.15-39 참조.

關口安義(2005)『芥川龍之介 永遠の求道者』洋々社, pp.11-40

鷺只雄 編(1992)『年表芥川龍之介』河出書房, pp.47-48

森本修(1977)『新考・芥川龍之介傳』北澤圖書出版, p.3, p.128, pp.20-23

「特集・芥川龍之介の世界」『国文学解釈と鑑賞』(11月号), 至文

논문투고일 : 2021년 10월 02일
심사개시일 : 2021년 10월 18일
1차 수정일 : 2021년 11월 11일
2차 수정일 : 2021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 2021년 11월 20일

<要旨>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문학에 나타난 가족 표상

- 만년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난희

본고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만년의 텍스트 『주유의 말』 『갓파』 『어느 바보의 일생』에 나타난 가족표상에 대해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전기를 다룬 문헌과 함께 살펴보았다.

그의 문학은 아포리즘과 우화형식을 취하고 있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텍스트의 행간에 담긴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실제체험과 그 의미에 주목했다. 이 텍스트들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죽음을 결의한 시기에 쓴 작품들인 만큼 그의 내면에서 분출되는 가식이 없는 욕성이 많이 들어있음을 고찰했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그려낸 가족 표상은 인간불신에 토대하고 있어서 부정적이고 회의적 요소가 강하다. 그가 인식한 부모와 자식은 비극의 근원, 가족은 이기적 사랑의 공동체이다. 그리고 가족제도는 부조리한 제도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그의 자의식을 형성한 가정환경 및 청년기 실연 체험이 있으며 엄혹한 시대상황도 일조했다고 보았다.

Family Representation in Akutagawa's Literature

- Focusing on works of later years -

Kim, Nan-Hee

This paper examines the representation of family in Akutagawa's three works of later years "shuju no kotoba" "kappa" "A life of a fool".

These works take the form of aphorism and allegory, so I paid attention to reading between the lines.

These texts are written he decided to die. Because of that, I think there is serious inner voice. The family representation that he describes is based on human distrus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hat he recognized is the root of tragedy. And the family is a community of selfish love. He also thinks that the family system is a foolish and absurd system.

Behind the perception is the home environment that shaped his self-consciousness. In addition, it was considered that frustrated marriage experience and dark times also had an influence. To write this paper, I referred to several of his biographies.